

1910年代 短篇에 나타난 現實認識의 兩面性

—「無情」, 「恨의 一生」, 「妓生」을 中心으로—

李 東 浩

<目 次>

- | | |
|-----------------|------------|
| 1. 序 言 | 4. 文學史的 意義 |
| 2. 社會的 狀況과 現實認識 | 5. 結 語 |
| 3. 現實認識의 兩面性 | |

1. 序 言

1910年代 短篇¹⁾은 李朝時代 漢文短篇에서 1920年代 近代短篇小說로 넘어 오는 전환기의 교량적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²⁾ 小說史上 중요한 意義를 지니고 있다. 지금까지 1910년대 短篇에 대한 연구는 이미 여러 학자들에 의해 다루어져 왔다.³⁾ 그 중 대표적인 것으로 李在銑, 朱鍾演, 宋敏鎬 教授의 연구를 들 수 있다. 李在銑에서는⁴⁾ 額字小說의 敘述構造를 중심으로 前代短篇

- 1) 短篇은 장르 체계에서 敘事樣式(Epik) 중 大型敘事樣式(Grossepik)에 대비되는 短型敘事樣式(Kurzepik)을 지칭한다. (李在銑; 韓國短篇小說研究, 서울, 一潮閣, 1975).
- 2) 李在銑 教授는 近代短篇小說의 前史의 背景으로서 李朝의 漢文短篇을 들고 있다. 그리고 20世紀 初期 短篇을 近代短篇小說의 準備段階로 보고 있다. (韓國短篇小說研究, p. 12)
- 3) 이 방편의 주요 업적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① 金基鉉, 「玄相允의 短篇小說」(서울, 文學과 知性, 1972, 겨울호). ② 金澤東, 「小星 玄相允論」(語文學 27호, 1972). ③ 李在銑, 《韓國開化期小說研究》(一潮閣, 1972), 《韓國短篇小說研究》(一潮閣, 1975). ④ 宋敏鎬, 《韓國開化期小說의 史的 研究》(一志社, 1975). ⑤ 李御寧, 「春園 初期 短篇小說의 分析」(文學思想 18호, 1974). ⑥ 尹明求, 「安國善 研究」(서울대 현대문학연구 8집, 1973). ⑦ 全光鏞, 「李人龍 研究」(서울대 논문집 人文·社會 6집, 1957). ⑧ 朱鍾演, 《韓國 近代 短篇小說研究》(서울, 螢雪出版社, 1979).
- 4) 註 3)의 ③.

과 近代短篇小說과의 연속성을 규명했고, 朱鍾演에서는⁵⁾ 韓國近代短篇小說을 開化期以後 수용된 새로운 叙事的 文藝樣式으로 보고 그 形成過程을 叙述構造的 측면과 發生的 측면에서 고찰했으며, 宋敏鎬에서는⁶⁾ 20세기 초기 短篇의 일부분을 開化期小說全體에 포함시킨 가운데 開化期小說을 史的으로 검토하면서 그 變移되는 과정을 살피고 있다. 여기서 20世紀 初期 短篇을 前代小說과 비교에서 主題와 叙述構造的 變化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變化의 樣相과 原因을 선명하게 밝혀내는 데는 이르지 못했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해서 叙述構造的 變化가 일어났으며, 그 變化가 무엇을 意味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소홀하다. 따라서 本稿는 각도를 달리하여 現實認識이란 측면에서 고찰함으로써 近代短篇小說研究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한다.

20世紀 初期는 前代에 비해 現實問題가 아주 심각하게 부각되었다. 그리고 증대 점진적으로 변화되어 오던 李朝社會의 秩序와 儒敎의 理念 및 價値觀이 개항 이후 外勢의 도전에 직면하게 되자 이 시기는 일대 변혁과 혼란을 야기했다.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는 작가들로 하여금 現實問題에 깊은 관심을 갖게 했으며, 그 결과 변화되는 사회상에서 새로운 秩序와 價値觀을 추구하도록 하여 人間과 삶, 그리고 眞實을 파악하는 데 대한 새로운 認識을 가능하게 했다. 이것이 韓國小說史에 있어 近代小說내지 近代短篇小說이 대두하게 된 필연적인 動機가 된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1910년대 短篇의 변모에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어야 할 것은 작자들이 現實을 어떻게 認識했었느냐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1910년대 短篇에 대한 資料 發掘과 기초적인 연구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점에 대한 연구는 소홀한 형편이다. 게다가 1910년대 短篇에서 당시의 價値觀 내지 倫理問題를 중요하게 다룬 作品이 많이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現實認識이란 측면에서의 고찰은 意義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文學作品은 그 자체로서 存在하는 것이 아니고 時代의 產物이며 社會의 반영⁷⁾이라는 점을 염두에 둘 때 우리는 이들 作品을 現實認識이란 측면에서 살펴 볼 필요성을 가지게 된다.

5) 註 3)의 ⑧

6) 註 3)의 ④

7) Arnold Hauser, *The Social History of Art* v.4., 1962. pp.19—20

그렇다면 現實을 어떻게 認識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現實에 대한 認識은 작품상에서 인물의 행위를 통한 사건전개에서 드러나며, 또 그것은 작품에 나타난 인물의 의식을 파악하고 그 人物을 형상화하고 있는 작가의 意識을 살피는 데서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作中人物의 意識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 인물의 현실에 대한 반응을 살펴 보아야 한다. 동시에 작가가 어떤 論理에 의해서 事件을 展開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이를 위하여 本稿는 기존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당시 사회적 상황에 대한 작가의 인식을 살펴 본 뒤에, 이것을 근거로 하여 現實認識이란 측면에서 작품 자체를 분석하고 그 양면성을 밝혀내어 당시 사회적 상황에 대한 작가의 인식과 작품 구조와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종래 연구에서 불분명하던 변모의 양상과 원인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으리라고 본다.

1910년대 短篇의 실상에 대해서 자세한 논의를 하려면 이 시기의 많은 작품을 다 거론해야 되겠지만 우선 작가가 분명하고 이 시기의 뚜렷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 李光洙의 「無情」⁸⁾과 玄相允의 「恨의 一生」⁹⁾ 그리고 安國善의 「妓生」¹⁰⁾을 주대상으로 해서 고찰해보려 한다.

2. 社會的 狀況과 現實認識

1910年代 短篇이 주로 다루고 있는 題材의 樣相은 倫理問題와 主人公 자신에 대한 個人的인 問題이다. 倫理問題가 前에 없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현상은 既存秩序의 變化 내지 價値觀의 變化가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이며, 이는 곧 社會構造의 전체적인 문제와 관련되는 것이다. 절대적 질서체계인 三綱五倫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기존 윤리적 체계는 李朝 封建社會의 基本的인 秩序體系이며 봉건사회구조의 理念的인 기반이다. 그런데 이념적 기반이 붕괴되고 있다는 것은 바로 李朝 封建社會의 基本的 秩序와 價値觀이 그 근저에서부터 동요되고 있는 것이며, 그 變化가 表面化되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動搖의 表面化는 기존 사회체계의 변화를 말해 주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동요는 이조 후기 판소리계 소설에서 이미 나타나고

8) 大韓興學報 11호, 1910

9) 靑春 2호, 1914

10) 韓國新小説全集 8, 乙酉文化社, 1969

있는 현상이나, 19世紀 말엽과 20世紀 초기에 들어서서 더욱 뚜렷이 표면화되고 있다는 점은 그 變化의 구체성을 말해 준다. 作品상에서 실제 既存 倫理的 價値觀을 고수하는 主人公의 죽음 내지 패배는 이와 같은 현상의 한 表出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變化는 당시 危機意識과 결부되어 더욱 가속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폐쇄된 구질서 體制에 대한 開放體制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日本의 무력시위에 의한 重商主義的 開港¹¹⁾과 西歐産業資本主義의 침입은 경제적 피해를 초래하게 되고, 그에 따른 안정되지 못한 삶으로 인한 民心의 動搖는 사회적으로 혼란을 더욱 가중하게 했으며 危機意識¹²⁾을 조장했다.

秩序는 안정된 기반에서 위력을 발휘하는 속성을 지닌 만큼 혼란된 상황에서의 기존 秩序의 고수는 무력할 뿐이다. 그리고 外國 경제의 침입(특히 日本)으로 국제경제의 기본체제인 農業經濟가 파탄됨으로써 국내경제가 잠식되고, 또한 貨幣·商品 經濟體制가 굳어져 감에 따라 貧富의 差는 한층 심하게 되었다. 그래서 安定되지 못한 삶에서의 既存 倫理的 秩序는 더 이상 지탱하기 어렵게 되었다. 〈恨의 一生〉에서 兩班인 김춘원은 가계가 몰락하게 되자 살아가기 위해서 남의 집 하인으로까지 몸을 팔게 되는데, 이는 既存倫理的 秩序가 더 이상 現實生活을 지탱해 줄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동시에 이와 같은 현상에서 主人公이 자신의 個體的 存在에 대한 문제를 더욱 절실히 생각하고 자신을 현재의 처지에서 發見하며 覺醒하고 있는 것을 찾아 볼 수 있다.

1910년대 短篇은 新聞과 雜誌를 통하여 게재 내지 발표되었다. 신문과 잡지를 통해 본격적으로 作品이 발표되기 시작한 것은 1906년 이후의 일이다. 그 前 해인 1905년은 소위 乙巳保護條約에 의하여 사실상 日本帝國主義에게 우리의 主權을 빼앗기고 日帝 統監府가 설치된 해인데, 韓國民族은 당면한 民族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主權回復運動〉을 전개하게 되었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완강한 의병전쟁이 전개되고, 한편으로는 愛國啓蒙運動이 전개되었다. 1910년대 作品들은 이 愛國啓蒙運動의 일환으로 신문과 잡지에 발표되게 된 것이며 이를 통해 민족의 당면한 처지에 대한 각성과 民族的 力量의 增

11) 愼鏞廈, 《韓國近代史와 社會變動》(서울, 文學과 知性社, 1980), p. 22

12) 趙東一, 「開化期の 憂國歌辭」, 李在銑, 「開化期の 憂國小説」, 《開化期の 憂國文學》(新丘文化社, 1974), pp. 54-120, pp. 133-189도 위기의식이 반영된 한 양상이다.

대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따라서 反民族의 方向으로 나아간 매국적인 집권층과 일제에 대하여 항거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言論活動은 1907년 신문 발행을 허가제로 하고 신문의 내용을 검열한다는 것을 主要骨子로 하는 <光武新聞紙法>이 賣國政府를 통해 제정되자, 제약이 따랐고, 일제로부터 탄압을 받게 되었다. 雜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잡지에서도 검열을 의식하여 「太極學報」의 투서란에서 처럼 “政治上에 關한 記事는 一切 受納치 아니함”¹³⁾이라고 하여 아예 받아들이지를 아니하였다. 그 결과 敎訓性이 짙은 倫理問題나 親日의인 題材를 다루게 되었다. 물론 여기에는 화폐경제시대에서 이윤의 추구에 따른 雜誌의 商業性도 무시할 수 없다. 아울러 敎訓性이 짙은 倫理問題를 男女간의 사랑을 통해 표현하고 있는 것도 재미를 찾는 독자의 요구에 상응하고 있는 상업성의 한 결과이다.

이처럼 20世紀 初期의 社會的 狀況은 變化와 侵入 그리고 抵抗으로 인한 혼란 그것이었으며, 실제 이 혼란 속의 새로운 秩序추구는 植民地 지배 질서로 굳어져 버렸다.

따라서 이 혼란된 현실 속에서 安定과 秩序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論理인데, 現實을 파악하고 대처하는 자세에 따라 그 방향을 달리 할 수 있다. 變化하는 현실 속에서 구질서를 회복하여 안정과 질서를 찾고자 하는 측면과 새로운 질서를 추구하고 안정과 질서를 찾고자 하는 측면이 그것이다. 이는 당시 現實에 대한 認識의 兩面性이자, 두 개의 思想的 측면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衛正斥邪思想과 開化思想이 그것이다.¹⁴⁾

13) 朱鍾演, 《韓國近代短篇小說研究》, 서울, 螢雪出版社, 1979, p.9 再引用

14) 衛正斥邪思想은 華夷思想과 三綱五倫에 價値基準을 두며 主理論에 그 哲學的 기반을 둠으로써 舊體制를 강화하여 西歐列強의 도전을 극복하려고 한 思想이었다고 볼 수 있다. 衛正斥邪思想은 外勢의 침입에 대한 危機意識에서 출발하였으며 國權을 지키려는 自主意識에서 日本과 西洋을 금수와 다름없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하여 의존적·주체적 開化意識과 충돌을 하기도 했다. 또한 衛正斥邪思想은 舊秩序의 회복을 통해 自強이란 保守의 思考方式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배타적이고 自修內存의인 性격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짙은 변천하는 韓末의 역사적 상황 속에서 民族의 自存意識으로 심화되고, 自主意識과 愛國愛族의 신념으로 발전되었다.

開化思想은 개혁을 지향하는 進步意識으로 서구의 近代의 과학 기술과 자본주의 사회·경제 체도를 도입 이용하여 체제문제를 해결하고 개혁을 성취하려던 思想이다. 그런데 자기 변화를 통해 새로운 질서를 찾고자 하는 開化思想에는 국내적 위기와 외세의 도전에 대해 民族의 力量을 의식하고 민족의 입장에서 서서 새로운 질서를 추구한 主體的 開化意識도 있었지만, 밑으로부터의 民族의 力量과 과

여기서 작가들이 이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표출하였는가 하는 것이 문제된다. 現實에서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은 安定과 秩序이며 自主獨立이다. 이는 혼란되고 구속된 현실 <있는 것>에 대한 <있어야 할 것>의 추구이며 現實에 대한 認識上的 眞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작가들은 現實에서 인식한 바의 <있어야 할 것>을 作品上에서 人物의 形象이나 人物간의 對立을 통하여 표출하였다. 그런데 작가들이 현실에서 인식한 바의 <있어야 할 것>이 現實의 구체적인 실상 파악에서 설정된 것인지, 아니면 현실의 피상적인 인식에서 오는 관념적인 구호에 그친 것인지에 따라 각각 현저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혼란되고 구속된 현실에서 구질서에 근거한 既存 倫理的 價値觀과 같은 保守的 思考方式에 의해 현실을 把握 대처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現實 속에 존재하는 새로운 삶의 질서를 認識은 하되 保守的 思考方式에 의해 把握 행동하고 있는가에 따라 작품상에서 각각 달리 나타나고 있다. 保守的 思考方式에 의해 현실을 파악하고 기존 윤리적 가치관과 같은 전제를 내세움으로써 인물의 성격이나 사건 전개에 논리가 현실과 동떨어지고 비합리적인 우연적 요소를 지니게 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進歩的 思考方式에 의해 삶의 存在原理에 따라 구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現實의 實相이 인물의 성격이나 사건전개의 논리에서 사실적이며 합리적으로 전개된 것도 있다. 그러나 작품상에서 寫實的이며 合理的으로 전개되고 있으나 실제 주인공의 행동은 保守的 사고방식에 따른 것도 있어 당시 사회적 상황에 대한 작가들의 인식태도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保守的 思考方式에 의한 현실인식은 기존 사회에서 통용된 인식상의 論理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호응될 수 있으며 폭넓은 지지기반을 지닐 수 있다. 그 결과 기존 가치관의 고수로 인해 主體性에 대한 강한 정진적 기반을 심어 줄 수 있었으나 現實의 實相을 무시한 관념적인 구호에 그치고 있어 폐쇄적이다. 進歩的 思考方式에 의한 現實認識은 현실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 대한 새로운 일면을 보여줌으로써 경이감을 불러 일으켰다. 그 결과 현실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심어줄 수 있었다. 한편 현실을 새롭게 인식은 하였으나 보수적 사고방식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모호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따라서 다

리된 채 반민족적 방향으로 나아간 沒主體의 開化意識도 있었다.

洪淳祀, 《韓末의 民族思想》(서울, 探求堂, 1977), pp. 54-60

愼鏞廈, 《韓國近代史와 社會變動》(서울, 文學과 知性社, 1980), pp. 11-21

음 章에서 現實에 대한 이와 같은 차이가 作品上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 보는 것이 요청된다.

3. 現實認識의 兩面性

3·1 「妓生」의 경우

事件順序와 叙述順序가 일치하는 이 作品에서 주인공 향운개, 유만과 추월, 김부자 등 네사람이 주요인물이다.¹⁵⁾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건 전개에서 향운개는 유만과의 愛情문제로 그의 母인 추월과 김부자와 대립·갈등하며 추월의 부당한 요구, 부자인 김부자의 후실로 들어가라는 요구에 대해서,

“내가 불행히 기생의 몸이 되었을지라도 절개는 지킬 수 밖에 없으니 제집 사람이 일부종사 못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못사람들을 상관하면 짐승이나 다를 것이 무엇 있사오리까…… 나는 어려서 유만이와 상종(相從)이 있었으니 유만이는 나의 남편인 즉 유만을 만나기 전에는 결코 다른 사람과 추한 관계를 맺지 아니하겠사오리라. 또 지금 법률에는 기생이라 하는 것이 재주를 팔아 먹으라는 것이지 배음하라는 것은 아니온 즉 나는 죽어도 어머니 말씀은 청종할 수 없었어요.”¹⁶⁾

하며 강경히 거절하고 있다. 妓生이란 사회의 여러 직업 중의 하나일 뿐이지 人間의인 存在價値마저 무시 당하는 그와 같은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서 香雲介는 기존 倫理的 價値를 고수하며 여자의 道理로서 일부종사할 것을 내세우고 있다. 기존 倫理的 規範에 입각하여 여자의 道理를 지키는 것이 社會秩序의 名分에 합당하며 유만과의 愛情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香雲介는 기존 윤리 규범을 내세우며 그 규범에 따라 당연히 행동해야 한다고 한다. 여기서 주인공이 婚約의 道理를 지키기 위해 既存 倫理規範을 내세우는 것을 밝은 것이라고만 할 수 없다. 그것은 道理의 理致를 들

15) 作品上에서 유만은 작품 序頭와 結末部分에서 사건발생과 결말을 장식하기 위해 잠깐 나올 뿐 실제 香雲介, 추월, 김부자의 대립관계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인물의 촛점도 위 세 사람에게 맞추어져 있기에 위 세 사람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이 요청된다.

16) 韓國新小說全集 8, p. 46

어 부모의 命을 거부하고 있는 주인공의 말처럼 주인공은 부모보다 자신의 道理의 이치가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그것에 근거하여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만이 도리라고는 생각지 않고 있는 자세 때문이다. 주인공은 愛情의 成就란 自我의 意志를 실현하기 위해 자신의 個體의 存在를 인식하고 그에 입각하여 自我의 意志를 적극적으로 실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近代의인 個人主義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은 意識을 지닌 주인공은 당면한 어려운 문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해결해 가고 있다. 喬雲介는 김부자와 추월의 계약(서울에 있는 유만이가 병으로 죽었다는 소문을 술꾼을 통해 향운개에게 알리는 것)을 逆利用하여 “나는 유만을 남편으로 알았더니 유만이 죽었다 하온즉 석 달만 유만의 복을 입을 터이니 그 동안만 참아 주시면 그 후는 영감의 말씀대로 하오리다.”¹⁷⁾ 하며 김부자의 집에서 탈출하고 있다.

그러나 喬雲介가 기존 倫理規範을 내세우면서 합리적으로 자아의 의지를 실현하는 행위의 이면에는 양심적으로 바르게 살아가며 옳게 행동하면 外的 狀況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반드시 사랑을 성취하리라는 굳은 信念이 內在하고 있다. 그래서 喬雲介는 자신의 信念대로 행동한 결과 親모의 도움을 얻어 김부자의 집에서 빠져 나오게 된다. 이는 옳고 바른 것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는 喬雲介의 意志가 실현된 것이며, 옳고 바른 것이 반드시 이긴다는 信念의 確認이기도 하다. 이것은 또한 유만과의 偶然한 相逢으로 外的 報償이 이루어지면서 재확인되고 있다. 한편 喬雲介는 어려움 속에서도 올바른 길을 찾아 적극적으로 살아가며 현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女人像을 드러내 주고 있다.

추월은 이와는 對照의인 人物이다. 추월에게 있어서 妓生이란 倫理規範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人間의인 存在價值보다 現實의 利益에 따라 자식을 財産의 일부로 생각하고 있다. 추월은 “그 딸 喬雲介의 얼굴이 절묘함을 보고 큰 보물덩어리로 생각하며 사 오년만 지나면 조선 킨지의 재산있는 집 자제들을 모두 후려들일 작정”¹⁸⁾이기에 가난한 유만과의 사이를 배어 놓고 방해하며, 자식을 자신이 호강하기 위한 한 수단으로서 생각하여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추월의 이러한 利己主義는 母女의 情도 갈라 놓고 있으며 필요에 의해서 찾고

17) 全集 8., p. 47

18) 全集 8., p. 42

있다. 그래서 社會秩序, 倫理規範도 추월에만 소용이 없다. 추월의 돈에 대한 욕망은 무엇보다 철저하며 돈을 위해서 자신의 人間的 存在價值마저 무시하고 있다. 돈이 人生의 全部이기에 김부자와도 쉽게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김부자는 돈을 이용하여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고자 한다. 돈이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고 믿고 있기에 財物로서 사람의 마음까지 사려다가 香雲介에게 패배당한다. 그러면서도 김부자는 “원래 효성이 지극한 사람이라 부친 생전에 한 번도 그 부친의 명령을 어긴 일이 없는”¹⁹⁾ 위인으로 기존 倫理規範에 맹목적으로 따르고 있다.

여기서 香雲介와 추월의 갈등에서 제기되는 倫理問題와 거기에서 빚어지는 現實의 矛盾이 작자가 계속 문제삼고 있는 쫓점이다. 이에 따라 작자는 현실의 부당한 요구와 어려움을 現實 自體의 논리에 따라 合理的으로 克服하고 기존 윤리규범을 지켜 사랑을 성취하고 있는 향운개에게 肯定的이며, 현실적 이익에 급급하여 돈에 인생의 전부를 걸고 있는 利己的·反社會的·非良心的인 추월과 욕망 충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으면서도 기존 윤리규범을 내세우고 있는, 僞善的인 김부자에게 否定的이다.

그러나 작자의 이와 같은 의식에서 우리는 作者意識의 兩面性을 찾아 볼 수 있다. 이는 주인공의 행위와 작품의 전체적 전개에서 드러나고 있다.

작자는 부당한 부모의 생각보다 자신의 판단이 옳다는 信念을 가지고 자신의 意志를 실현하고 있는 향운개와 그러면서 既存 倫理規範을 지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자신의 內面的 信念으로 하여 행동한 결과 偶然히 유만과의 사랑을 성취하고 있는 香雲介에 대해서 같은 意識을 지니고 있다. 또한 作品 前半의 合理的인 사건전개를 무시하고 善한 自我的 幸福한 結末 부분에서 갑작스런 일본·중국에서의 事件과 전쟁터에서 유만과의 偶然한 相逢 등을 삽입하고 있는데, 이는 있어야 할 것이 당연히 긍정되고 부당한 것이 마땅히 부정되어야 한다는 논리에서 삽입된 사건이다. 이는 옳고 바른 것이 패망할 수 없다는 작자의 세상 이치²⁰⁾의 구현이기도 하면서 옳한 것은 망할 수 없다는 當爲論이 내재한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점은 작자가 현실의 具體的인 經驗에 입각하여 現實을 있는 그대로 認識하면서도 觀念的이고 先驗的인 論理에 따른 결과이다. 그 결과 作品상에서 논리의 비약과 모순을 드러내어 그 兩面性을 드러내고 있다.

19) 全集 8, p. 49

20) 全集 8, p. 75

3.2 無情의 경우

事件順序와 叙述順序가 어긋난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이 작품은 의혹에 찬 사건의 결과가 먼저 제시되고 그 결과에 대한 원인이 과거 사건의 전개에서 밝혀지고 있다. 作品 序頭에서 제시되고 있는 부인의 죽음은 잘못된 結婚과 남편으로부터의 버림받음 그리고 家庭內에서 자신의 위치 상실 등 계속된 불행이 그 원인으로 밝혀진다. 과거 사건 전개에서 요약적으로 제시되는 이와 같은 것은 현재사건의 결과를 밝히기 위해서 전개될 뿐 현재사건의 발전을 위해서 전개되지는 않고 있다.

作品에서 主人公은 자신의 愛情問題와 倫理問題로 갈등하고 있으나 불만족스런 現實을 사회제도에 따른 어쩔 수 없는 運命으로 받아들이며 살고 있다. 주인공은 자신의 愛情을 위해서 불만족스런 남편을 남편으로서 대하고 있으나, 남편은 부인의 愛情과는 관계없이 자신의 幸福 추구를 위해서 의도를 하며 결국 妾을 들여 같이 살게 되는 데까지 이른다. 부인은 남편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悲哀를 느끼며 원망하나, 기존 倫理規範 때문에 걸음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남편이 하는대로 봐 두며 기존 倫理規範에 따르고 있다. 주인공이 그와 같은 사실이 자신의 犧牲만을 강요하는 不當한 것임을 認識하면서도 거기에 구속되고 있는 것은 한 가정의 머느리로서 남편의 蓄妾을 인정하고 媳父母의 命에 복종하며 남편의 意思에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外的으로 美德이자 內的으로 愛情을 성취하며 자신의 存在意義를 찾는 길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편은 자신의 幸福을 위해서 부인의 不幸과 家庭의 和平과는 관계없이 행동하고 있다. 媳父母는 머느리란 既存 倫理規範에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에 주인공에게 복종만을 요구할 뿐이며 자식(남편)의 행위에 대해서는 걸음으로 반대하나 속으로 동조하고 있다.

그러나 주인공은 자신의 희생의 댓가로 들어온 첩에게 愛情과 家庭內에서의 위치를 빼앗기게 되고 그리고 巫女에게 占을 쳐 본 결과 임신한 아이마저 딸이라는 사실에 절망하여 자살하게 된다. 주인공은 宗孫을 낳지 못함으로써 韓氏집안의 만머느리로서의 義務를 다 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에, 한편으로는 宗孫을 낳음으로써 韓氏집 宗家 만머느리로서 자신의 確固한 位置를 확보할 수 있다는 마지막 꿈마저 무산되었기 때문에 자살하고 있다.

주인공의 죽음은 既存 倫理規範과 家族制度의 矛盾을 예리하게 드러낸 것이면서 그에 대한 비장한 반발을 나타낸 것이다. 주인공이 기존 윤리규범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자신의 存在를 意識하는 것이며, 자신을 위하는 진정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의혹을 가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절대적 價値基準인 기존 윤리규범이 자신을 지켜주리라는 固定觀念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既存 倫理規範이, 固定觀念이 현실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覺醒했을 때 주인공이 취한 행동은 自我矛盾의 결과에서 온 자살이란 죽을 뿐이다. 주인공이 취한 행동이 비록 既存 倫理規範에 대한 새로운 認識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이는 주인공이 자신의 희생의 패감에서 우울감을 확인하는 비정상적인 심리²¹⁾이다.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주인공만 마땅히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기존 윤리규범이 주인공의 內面的 信念으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인공의 행위는 現實과 遊離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작자는 주인공의 誠實하고 헌신적인 노력에 대해 남편의 非良心的인 태도와 家族制度의 矛盾에서 빚어지는 不幸을 문제삼으면서 이와 같은 주인공의 행위를 肯定的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 婦人으로 하여금 一容姿 淑德을 無備호 이 婦人으로 하여금 이 地境에 니르게 혼者 그 누구?”²²⁾ 작자는 모순된 가족제도와 부당한 남편의 행위에도 불구하고 기존 倫理規範에 입각하여 좋하게 행동한 부인과 같은 입장이 되고 있다. 그래서 부인의 행위는 찬양을 받고 연민의 동정심을 일으킨다.

그러나 있는 현실과는 관계없이 기존 윤리규범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좋하다는 態度는 삶의 현실을 무시한 皮相적인 觀念的 姿勢이며 그 善은 觀念的인 善일 수 밖에 없다. 주인공의 죽음은 이와 같은 姿勢의 結果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공의 행위는 있는 현실에서 있어야 할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作品의 實相과 어긋나며 모호한 결과를 가져왔다. 早婚의 結합과 蓄妾제도의 矛盾 등 부당하고 모순된 현실을 타파하고자 주인공의 행위를 표출하고 있는데 주인공의 행위는 결과적으로 그 不當한 現實을 긍정하고 있다. 모순된 현실을 거부하고 마땅히 있어야 할 현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존 윤리규범에 따라 행동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인공의 행위는 긍정할 것을 긍정하지 못하고, 부정할 것을 철저히 부정하지도 않은 모호한 결과를 가져왔다. 그래서 生活 그 自體에서 이루어진 부인과 남편의 관계에서 부인이 일방적으로 패배하고 있지만 부인의 죽음은 善한 自我가 마땅히 승리해야 된

21) 趙東一, 《韓國文學思想史 試論》, 서울 知識産業社, 1978, p. 339

22) 「無情」, p. 42

다는 것을 현실 자체의 사실과는 관계없이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것은 작가가 現實을 있는 그대로 認識하고자 하는 經驗的 認識에 불구하고 그리고 現實의으로 乖離된 행동이 죽음이란 엄청난 결과를 가져 왔는 데도 불구하고, 觀念的인 행위와 姿勢를 肯定하고 있는 모순을 드러낸 것이다. 이것이 작가의식의 양면성으로 지적될 수 있다.

3.3 「恨의 一生」

「恨의 一生」은 「無情」과 같이 서술순서와 사건순서가 어긋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作品 序頭에서 의혹에 찬 살인과 자살이 발생하고 그 사건의 원인이 과거사건 전개에서 밝혀지고 있다. 과거는 오직 현재의 결과를 밝히기 위해서 전개될 뿐 미래를 향해서 진행되지는 않고 있다. 작품 서두에서 제시되고 있는 그믐밤의 어두운 場面은 김춘원의 生의 암담함을 상징하고 있는 것으로 춘원에게 있어서 현실은 어딜 때부터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다.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 춘원은 고난의 어려움 속에서 자신의 처지를 自覺하게 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한다. 兩班의 신분이지만 現實은 兩班의 신분을 지키기 위해서 經濟的인 富를 요구했으며 춘원은 이 富를 획득하기 위해서 양반이란 신분을 버리고 남의 집 하인으로까지 들어가야 했다. 하지만 마음 속으로 자신의 신분에 대한 긍지까지 버린 것은 아니다. 그 긍지를 갖게 해 준 것이 약혼자인 李進士의 딸 영애이다. 춘원에게 있어서 영애는 愛情實現을 위한 대상이자 자신의 存在에 대한 意義의 구현이며 자신의 신분을 지키고자 하는 근거이다. 가난하고 힘이 없지만 過去 當당한 兩班집 자식으로 남뭍지 않았다는 意識이 잠재하고 있기 때문에 윤상호와 대결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은 남에게 구속받고 있는 처지이나 영애와 같은 예쁜 양반집 여자와 약혼을 맺은 사실에서 현재의 보잘 것 없는 자신의 存在에 대한 存在意義를 지니고 있다.

現實의으로 윤상호에게 어쩔할 수 없는 가난한 상황이지만 내면적으로 잠재한 기존 倫理的 價値觀은 윤상호의 부유하나 不道德한 행위를 용납하지 않고 있다. 춘원은 上典인 윤상호에게 현실적으로 上典으로서 대우를 해주나, 돈 때문에 매여 있는 것이지 그러하지 않다는 동등한 의식을 지니고 있다. 춘원은 자신의 현실적 처지에 대한 자각으로 부조리한 현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항하고 있으며 현실을 현실대로 인정하되 현실에 대한 행동의 基準을 既存倫理的 價値觀에 두고 있다.

그러나 삶의 가치의 근거인 영예를 남에게 빼앗기게 되고 영애가 변설을 하게 된다는 것은 자신의 삶에 대한 意義의 喪失이며 절망이다. 그래서 기존 倫理的 價値가 통하지 않는 현실과 희생만을 강요하는 현실에서 춘원의 內面에 內在한 既存 倫理的 價値觀은 타격받지 않을 수 없고 그 타격의 한 보상으로써 영애가 존재하였는데 그것마저 상실하게 되자 파괴적이 되고 있다. 부조리한 현실과 倫理的 價値觀의 파탄, 그리고 이와 같은 현실에 대한 춘원 자신의 내면적 生의 主體的 不安이 춘원을 虛無意識과 絶望에 직면하게 한다. 그런데 그 喪失과 絶望은 자신에 대한 자포자기와 동시에 현실에 대하여 오히려 도전적이고 파괴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윤상호는 물려 받은 재산을 낭비하며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다. 돈이면 모든 일이 다 될 수 있다는 논리에 따라 기존 倫理的 價値觀을 무시하고 자신에게 편리한 방법으로 생활하고 있다. 하인으로 부리고 있는 춘원에게 實利的인 利益을 위해서 일을 시킬 뿐 人情이 개입된 인간적인 면은 없다. 욕망 달성을 위해서는 혼약을 정한 여자라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탈취하며 돈으로써 일을 해결해 가려고 한다.

이영애는 춘원과의 혼약의 道理를 지키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가난이던 자신의 희생을 각오해야 되나 편안한 생활과 실질적인 利害를 따질 때 富者인 윤상호의 유혹에 넘어 간다. 既存倫理와 現實의 利益과의 兩者 擇一이라는 선택 기로에서, 婚約의 道理를 지켜야 되는 기존 倫理的 價値觀의 고수보다 자신의 安樂을 위해서 윤상호를 택한다.

여기서 作者는 춘원이라는 인물이 피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굶주려야 되고 삶의 근거까지 빼앗겨야 되는 반면에 상호라는 인물은 不道德한 행위에도 잘 살고 있는 현실의 모순을 문제 삼으면서 춘원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상호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영애를 처음엔 肯定的이다가 나중에 否定的으로 보고 있다. 작자는 物質的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現實生活을 인정은 하지만 既存 倫理的 價値觀에 따라 정당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잘 살아야 된다는 現實에 대한 認識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富를 幸福하게 생활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가난하지만 기존 倫理的 價値觀을 존중하며 정당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춘원에게 긍정적이다. 그러나 기존 倫理的 價値는 부차적인 문제이고 자신의 욕망 충족을 위해서 非人間的인 수단으로 사랑을 빼앗으려는 데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따라서 現實의 利害關係에 따라 춘원과의 人間的인 사랑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영애의

행위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작자는 피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난하며 가난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약혼자마저 빼앗겨야 되는 춘원에게 동정심을 보내며 부정행위에도 잘 살고 있는 상호와 도리를 배신한 영애의 행위에 분개하고 그들을 죽이고 있다. 不條理的 現實과 부정되고 있는 기존 倫理的 價値觀에 대하여 춘원이 행한 살인과 자살은 삶의 현실에서 그 어느 누구의 승리도 아닌 비극적인 不幸한 結果를 가져왔다. 그러나 非人間的이고 惡한 것이 마땅히 없어지고 人間的이고 善한 것이 당연히 행해져야 된다는 것을 춘원의 내면에 信念化된 既存 倫理的 價値觀에 의해 나타내 주고 있다.

따라서 있는 현실을 具體的으로 認識한 결과 現在의 事實이 중시되고 현재의 결과가 중요하게 인식되어, 작품상에서 現實 그 自體의 論理에 따라 사건이 전개되고 있으며 요약적인 전개 보다 場面 中心의 전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삶의 현실에서 벌어지는 자아와 세계의 대결에서 세계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既存倫理的 價値觀이 自我의 內面으로 信念化되어 자아의 일방적인 요구만을 내세우고 있다. 그 결과 있는 현실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는 있으나 既存觀念에 의해 판단 행동하고 있는 兩面性을 드러내고 있다.

4. 文學史的 意義

1910년대 短篇들이 문학작품으로서 1920년대 近代短篇小說에 비해 볼 때 그 審美性이 결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現實認識의 兩面性에서 살핀 바와 같이 1910년대 短篇들이 지니는 文學的 價値는 現實을 있는 그대로 認識하고 그것을 寫實的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한 經驗的 認識과 그 具體性에 있다.

經驗的 具體性에 대한 논의는 이미 李朝後期 小說을 논하면서 문제시 되었고 또한 놀이 評價받은 문제이다.²³⁾ 그러나 李朝後期 小說들은 그 經驗的 具體性이 作品의 全面을 지배하지 못하고 또한 經驗的 認識에 따라 作品이 일관되게 전개되지도 않고 있다. 李朝後期 小說들은 表面的으로 觀念的 因果論理²⁴⁾가 여전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논리에 의해 작품에

23) 趙東一, 《新小說의 文學史的 性格》, 鄭炳恩, 《한국고전의 재인식》, 李在鏞, 《韓國現代小說史》, 金一烈, 「英雄小說의 近代的 變遷에 관한 一考察」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24) 觀念的인 因果論理의 必然性은 英雄小說의 作品構造(趙東一, 《韓國小說의 理

서의 갈등이 해소되고 있다. 말하자면 表面的으로는 觀念的 因果論理가 작용하여 作品 全體를 지배하면서 裏面的 部分的으로 現實 그 자체가 지닌 갈등관계의 논리와 經驗的 具體性으로 이루어져 있다.

近代小說의 成立을 다루는 既存 研究에서는 이와같은 裏面的 部分的인 점에 대해 중시하면서 그 樣相의 표면화를 드러내는데 초점이 주어져 있다. 그런데 1910년대 短篇에서 나타난 樣相은 李朝後期 小說에서 나타나고 있는 樣相이 완전히 逆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데에 그 중요성이 있다. 現實認識의 兩面性에서 살핀 바와 같이, 表面的으로 現實을 있는 그대로 認識하고 그것을 寫實的으로 表現하고 있는 樣相이 作品의 全而를 지배하고 事件展開의 主要論理로서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서 裏面的으로 既存 觀念에 따른 樣相이 주인공의 內面的 信念으로 化하여 나타나고 있거나, 作品의 結末 部分의 처리에서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치고 있다.

李朝後期 小說에서 나타나던 樣相이 이처럼 逆轉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은 小說史上 획기적인 轉換이면서 굉장한 衝擊의 결과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西歐勢力的 침입으로 이제까지 믿어오던 李朝 封建主義의 崩壞를 경험했기 때문이며 그 崩壞에서 파생된 混亂의 渦中에서 새로운 價值基準을 설정해야 했기 때문이다. 새로운 가치기준은 既存의 價值基準으로 설정될 수 없었고 오히려 既存의 價值觀이 당대 現實에서 無力視됨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 결과 現實의 具體的 立場에서 자신의 처지를 판단하게 되는 經驗的 認識만이 자신을 지킬 수 있음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經驗的 認識에서 자신의 幸福을 위해 父母가 絶對者로 되어 있는 가족제도를 거부하고 대담하게 행동하는 자식까지 나타나게 되었으며, 不幸을 작오하고라도 자신의 意志를 실현하기 위해 부당한 現實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결하는 현상이 표지되게 된 것이다.

따라서 經驗的 認識을 함으로써 現實을 바로 직시하게 되었고 직시한 현실의 문제점을 그 核心的인 것에서부터 作品의 전면에 표출하게 됨에 따라 經驗的 具體性이 作品의 전체를 지배하게 되었다. 그 결과 前代에서 찾기 어렵던 敘述의 逆轉이 시도될 수 있었고 不幸한 結末이 이상스러운 것이 아

論》(서울, 知識産業社, 1977)에 잘 나타나 있다. 영웅소설의 作品構造에서 天上界의 秩序에 의해 地上界의 秩序가 규정되고, 天上界의 秩序에 의해 정해진 當爲가 地上界에서도 당연히 행해져야 된다는 因果論理에 따라 작품에서 偶然히 必然으로 認識되며, 그리고 善·惡의 대결에서 善이 부정될 수 없다는 當爲의 論理에 따른 認識에서 善이 언제나 승리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는 自然스러운 것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바로 이와 같은 점이 1920년대에 있어서 近代短篇小說을 낳게하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고 있거 때문에 1910년대 短篇이 간과될 수 없는 文學史的 意義를 지니고 있다.

한편 經驗的 具體性이 作品의 전면을 지배하고 있지만 그것은 表面的이고 部分的 裏面的으로는 여전히 既存 觀念이 내재하고 있다는 限界를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限界는 당대의 狀況이 처한 歷史的인 限界를 나타낸 것이다. 李朝 封建主義 體制가 무너지고 새로운 西歐, 日本의 勢力들이 침입함에 따라 混亂의 渦中에 처해 있던 당시에서 既存 價値觀은 無力하기 마련이었으며 無力한 既存 價値觀은 現實的인 새로운 價値觀에 의해 대체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새로운 價値觀의 基準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이 시기는 혼란만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당시 兩大思想이라 할 수 있는 衛正斥邪思想과 開化思想이 혼란된 당시 상황에서 無力한 既存 價値觀에 대한 새로운 대응책으로 제시 주장된 것이었으나, 이러한 대응책은 그 어느 것도 혼란을 통일시키고 秩序化하는데 근본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혼란을 더 부채질했기 때문이다. 이는 당대 現實이 지닌 兩面性이면서 歷史的인 限界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作者意識에서 드러나고 있는 兩面性은 이와같은 歷史的인 限界를 반영하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러한 兩面性 내지 限界에도 불구하고 1910년대 短篇에서 作品의 전면으로 나타나고 있는 經驗的 認識과 그 具體性이 文學史的 發展에 중요한 轉換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기에 1910년대 短篇은 무시될 수 없는 意義를 지니고 있다.

5. 結 論

이상에서 살펴 본 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10년대 短篇들은 現實認識의 면에서 그 兩面性을 드러내고 있다. 作品에서 표면적으로 있는 현실을 具體的으로 認識한 결과 現在의 事實이 중시되고 현재의 결과가 중요하게 인식되어 現實 그 自體의 論理에 따라 寫實的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으나, 이면적 부분적으로 삶의 현실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既存觀念 내지 價値觀이 自我의 內面으로 信念化되어 자아의 일방적인 요구만을 내세우고 있다. 그 결과 있는 현실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는 있으나 기존 관념에 의해 판단 행동하고 있는 兩面性을 드러내고 있다.

現實認識에서의 이와 같은 兩面性은 李朝 後期 小說에서 드러나고 있는 현상과는 반격적인 것으로서 近代短篇 小說의 成立에 중요한 轉換의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은 당시 狀況과의 관계에서 해명될 수 있는 문제로서 새로운 勢力인 西歐, 日本의 침입과 그로 인한 李朝 封建社會의 崩壞에서 오는 강한 衝擊 그리고 거기에서 파생된 혼란에서 야기된 價値基準 내지 認識上的 混亂이 위와 같은 現實에 대한 認識의 兩面性을 낳고 있다. 이는 또한 歷史的인 限界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작품에서 표면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經驗的 認識과 그 具體性은, 그 이면적으로 既存觀念이 內在化하고 있는 한계를 지니고 있으나, 近代短篇 小說成立이란 文學史의 발전에 중요한 轉換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기에 무시될 수 없는 意義를 지니고 있다.

參 考 文 獻

- 金基鉉, 「玄相允의 短篇小說」, 文學과 知性, 겨울호, 서울, 1972
- 金允植·김현, 《韓國文學史》 서울, 민음社, 1978
- 金一烈, 「英雄小說의 近代의 變貌에 관한 一考察」, 慶大語文論叢 13.4合併號, 대구, 1980
- 金澤東, 「小星玄相允論」, 語文學 27輯, 1972
- 宋敏鎭, 《韓國開化期小說의 史的研究》 서울, 一志社, 1975
- 愼鏞度, 《韓國近代史와 社會變動》, 서울, 文學과 知性社, 1980
- 安秉直, 「19세기말과 20세기 초의 社會經濟와 民族運動」, 《變革時代의 韓國史》, 서울, 東平社, 1979
- 李在銑, 《韓國開化期小說研究》, 서울, 一潮閣, 1972
- 《韓國短篇小說研究》, 서울, 一潮閣, 1975
- 《韓國現代小說史》, 서울, 弘盛社, 1979
- 林芝暉, 홍부권의 現實성에 관한 研究, 《韓國古典小說》, 啓明大學出版部, 1974
- 鄭炳昱, 《한국고전의 계인식》, 서울, 弘盛社, 1979
- 朱鍾演, 《韓國近代短篇小說研究》, 대구, 藝露出版社, 1979
- 趙東一, 《新小說의 文學史的 性格》, 서울대, 韓國文化研究所, 1973
- 《韓國小說의 理論》, 서울, 知識產業社, 1977
- 《韓國文學思想史試論》, 서울, 〃, 1978
- 洪淳兪, 《韓末의 民族思想》, 서울, 探求堂, 1977
- Hausz, Arnold; *The Social History of Art*, v. 4, London Routledge & Kegan Poul, 1968